

우리 프란치스칸 감성에 대한 검토

레이나 마허, 재속회원 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기본 본능이 있음을 배웠다. 이 본능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세상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차리고 이 물질에 적응해가는 능력을 키워간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질 줄 알게 되고, 맛 볼 줄 알게 된다. 우리의 이 감각이 우리를 둘러 쌓고 있는 세상과 사물에 적응해 가며 살아 가게 도와준다.

우리는 프란치스칸으로서 사부님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며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매일의 회개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일깨워 준다. 서약 과정을 통하여, 이 복음적 가치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본능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물으며 답을 찾아 살아가도록 해 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프란치스칸의 눈으로 바라 보는가? 나는 세상을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습이 세상에 새겨진 것을 프란치스칸 시각을 통하여 보는가? 특별히, 나와 외모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이 “네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영상”이라고 보고 받아드리는가? (회칙: 5 조) 사람들이 나를 바라 볼 때 무엇을 보는가? 나의 행실이 바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표본이라고 보는가? 나의 마음 속을 바라 보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프란치스칸적 사랑의 귀로 사물을 듣는가? 나는 성령의 부르심에 어떻게 듣고 답하는가? 나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가? 들어 보자 “가장 작은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회가 제쳐 놓은 이들에게 주어진 여지는?(Evangelii Gaudium, 195).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가? 내 말에는 사랑의 말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포가 들어 있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에 귀를 기울일지?

나는 프란치스칸 코로 냄새를 맡는가? 나는 피조물의 향기를 분별하는가? 코린디안 후서 2 장 14-15 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 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랑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나는 프란치스칸 사랑으로 사물을 만지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접근하며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성 프란치스코께서 나병환자를 끌어 안아서 받아드린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나는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회 삶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프란치스칸 입맛을 아는가? 나의 생각과 뜻이 프란치스칸들의 입맛에 가까운가? 나의 프란치스칸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나는 복음에 깊이 빠진 사람인가? 나는 자신의 성소에 관심 있어,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권하는가? 시편 34 장 9 절을 읽고 묵상을 해 보라: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나는 주님을 믿는가? 고통처럼 보이는 것이 변하여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성 프란치스코의 고백) 나는 육신과 영혼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가?

형제자매 들이여, 우리는 복음주의 수도회인 재속 프란치스칸 회원으로서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로 불림을 받았다.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프란치스칸 사랑과 자비를 들어내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우리의 프란치스칸 본성을 살려가고 계신지요?